

설득은 수사학의 일이 아닌가?

-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의 전문성 -

한석환*

- I. 수사학의 과제와 용도
- II.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과 설득인자의 통찰
- III. 수사학 규정의 논리적 귀결
- IV. 맺음말: 학인 한에서 수사학의 전문성

■ 국문요약

이 글은 설득은 수사학의 일이 아니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견 생똥맞은 언명의 진의를 묻는다. 예상 밖의 언명이라 놀랍긴 해도 그가 『수사학』 I권 1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라는 점과 학인 한에서의 수사학의 과제를 명시하는 대목에 나오는 언명이라는 점에서 사태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수사학 프로젝트의 정당화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수사학의 본질 규정과 관련이 있다. 가짓수로는 두 물음이지만 실상은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사태를 드러낸다.

한편 수사학의 학적 과제 규정에는 논리적 귀결이 따르는 바, 수사학의 가치중립성과 수사학 사용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수사학의 학적 성격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일조하는 물음들이다. 수사학의 과제 규정과 관

*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swhhahn@ssu.ac.kr

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물음의 논의는 결국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설득이 어떤 유의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주제어 ● 가치중립성,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 변증법의 맞상대, 설득인자, 수사증명,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

‘설득은 수사학의 일(ergon)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수사학』 I권 1장 끝부분(1355b7-21)에서 그때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다. 설득이 수사학의 일이 아니면 무엇이 수사학의 일인가. 어떤 사안이든 그 안에 묻혀 있는 ‘설득을 가능케 하는 요소’를 통찰 내지 포착하는 일이다. 설득이 수사학의 일이 아니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아리스토텔레스가 흥중에 간직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글의 과제는 설득이 수사학의 일이 아니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튀는’ 발언의 의미를 묻는 일이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수사학의 가치중립성과 수사학 사용의 필요성 물음으로 이어지는데 두 물음의 논의는 위의 문제 해명을 보강한다. 이 논구는 수사학의 학적 과제, 가치중립성, 그것의 사용을 통해 얻는 이득 등을 검토함으로써 중국적으로 수사학이 어떤 학문인지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설득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논의의 출발선상에서 손쉽게 붙들 수 있는 실마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일’로 번역한 ‘에르곤’이라는 그리스어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의 언명이 나오는 지점인데 거기서는 『수사학』 I권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그때까지 논의한 내용이 요점적으로 정리되고 있다.

I. 수사학의 과제와 용도

1. ‘에르곤’의 의미

‘에르곤’이라는 그리스어 표현은 어떤 한 사물의 ‘하는 일’, ‘기능’, ‘과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의 대상 특유의 기능이 발휘됨으로써 산출된 ‘결과물’ 혹은 ‘제작품’을 가리키기도 한다. 에르곤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제작기술이다. 제작기술에서 중요한 것은 그 기술로 제작된 결과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과물은 그 기술의 목표이다. 동시에 그것은 그 기술의 본질을 규정하기도 한다. 양자, 즉 결과물과 본질 규정은 목표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어떤 목표인가에서는 차이가 난다. 결과물이라는 의미의 에르곤이 제작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종점이라는 의미의 목표라면 본질 규정이라는 의미의 에르곤은 문제의 제작기술이 기술인 한에서 무엇인가를 규정한다는 의미의 목표이다. 일례로 제화술이 무엇인가는 그 기술을 통해 제작된 구두를 보면 알 수 있고 시작술(詩作術)이 무엇인가는 그 작법을 따라 창작된 극(시)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쨌든 문제의 기술의 에르곤을 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와 그것의 목표 곧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가 밝히 드러난다.

1) 에르곤 vs. 유익

그러나 에르곤을 말하는 것만으로 그 용도가 무엇인지 가늠이 안 되는 기술도 있다. 변증법과 수사학이 그렇다.¹⁾ 이런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르

1) 관용으로 정착되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일 뿐 ‘변증법’과 ‘수사학’은 기술로 분류되기에 ‘변증(기)술’과 ‘수사(기)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기술’이라는 한국어 번역어와 달리 그리스어 ‘테크네’는 앎의 차원에서 ‘에피스테메’(학문, 과학, 과학적 앎)와 다르지 않다. 그 둘 모두 ① 사태를 보편 개념으로 기술한다는 특징과 ② 사태의 이유 혹은 근거를 포착하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광의의) 대중적인 의미에서는 그 둘이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Met.* 981b8-9; 981b14.17.24). 그러나 전문적 의미의 ‘기술’은 ‘학’과 명확히 구별된다. 먼저 ‘학’하고는 대상에서 차이가 난다. 학에서 다루지는 대상은 ‘다른 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다(*EN* VI 4, 1139b20). 필연성, 영원성, 불변성이 저들 대상의 특성

곤(하는 일) 외에 용도 혹은 소용(所用)을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일례로 변증법의 경우 그것의 ‘하는 일’은 주어진 언명에 대하여 찬반의 논변을 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다(Top. I1, 100a18-21). 그러나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기량의 용도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 I권 2장에서 변증법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1) 논변을 펴는 일을 훈련할 때, (2) 어쩌다 만난 사람들과 갑론을박 논전을 벌일 때, (3) 원리를 끌어낼 때가 그런 경우이다(101a27 이하). 그러나 이것이 다냐면 그렇지 않다. 그밖에도 여러 용도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

수사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서두에 말했듯이 수사학의 과제는 어떤 사안이 되었던 주어진 사안에 묻혀 있는 ‘설득을 일궈낼 수 있는 요소’를 포착하는 일이다(1355b10-11). 『수사학』 I권 2장 첫머리에서도 수사학은 “어떤 사안에서든 ‘설득을 가능케 하는 요소’를 고찰하는 능력”으로 규정된다(1355b26-27). 이 두 대목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시적으로 수사학의 ‘에르곤’을 말한다(10행, 28행). 이들 대목에 따르면 수사학의 에르곤은 설득력이 있는 것을 포착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증법에서처럼 수사학에서도 에르곤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의 용도까지 특정된 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I권 1장(1355a20-b7)에서 수사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굳이 덧붙이는 연유도 그런 데에 있다.

본디 용도나 이득의 물음은 제작학과 실천학에서나 제기된다. 다른 무엇

이다. 그에 반하여 기술의 대상은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1140a2).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대상들과는 제작(*poiēsis*)이 관련될 수도 있고 행동(*praxis*)이 관련될 수도 있다. 기술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제작과 관련하여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들뿐이다. 행동과 관련하여 ‘다른 식으로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사려분별’(*phronēsis*)의 소관이다. 수사학이 학이 아니라 기술로 간주되는 이유는 ①(학과 달리) 개연적인 것, 가변적인 것에 관계하기 때문이고 ②(행동이 아니라) 제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로는 기하학이든 천문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경제학이든 모든 ‘학문’에 ‘학’이 붙는다. 심지어 풍수지리학, 사주명리학, 관상학 같은 ‘학’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학과 기술의 구별이 한국어 상으로는 무색하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이하에서는 수사학과 관련하여 ‘기술’과 ‘학’을 구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적절히 혼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테크네로서 수사학의 학적 지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가를 제작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론학에서는 용도나 이득의 물음이 대두되지 않는다. 매개된 앎이 그것 자체를 위해 추구되기 때문이다(Met. I 1, 981b17-20; I 2, 982a14-16). 용도나 이득은 그런 앎을 넘어서는 별도의 목표가 있을 때라야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인데 이론학에는 앎인 한에서의 앎 외에 다른 목표가 없는 까닭이다. 『에우데모스 윤리학』 I권 5장에 이러한 사태가 잘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덕의 본질만 문제일 뿐 덕의 성립조건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오직 이론학에만 해당한다. 천문학, 자연학, 기하학의 경우 그같이 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관조하는 일 외에 다른(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물론이거니와 이들(이론학이)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의 조달)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우연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제작학의 목표는 앎이나 인식과는 별개인 바, 예컨대 건강이 의학과 별개이고 좋은 입법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이 정치학과 별개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1216b10-19)²⁾

실천학의 목표는 그저 덕을 인식하는 데 있지 않고 실로 내가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EE I 5, 1216b23; EN X 10, 1179b2-4). 실천학의 목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동이다(1095a5-6; 1103b26-30; 1179b1-2). 행동도 그냥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이다. 행동을 ‘잘 하는’ 것 말이다(1098b21). 중국적으로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 즉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실천학의 목표이다. 제작학의 목표는 제작의 결과물로서 제작 활동에서 ‘분리된’ 것인데 반하여 실천학의 목표는 활동 자체에 내재한다. 일례로 어떤 한 행동을 가리켜 용기있다고 하는 것

2) 인용의 마지막 문장(1216b16-19)을 패러프레이즈 하면 다음과 같다. ‘제작학의 목표, 즉(제작학에 기초하여 제작된) 결과물은(제작학의) 앎이나 인식하고는 별개이다. 그것은(의학 지식에 기초한 치료과정을 통해 얻은) 건강(이라는 결과)이 의학(지식)과 **별개**이고 또(정치학에 근거하여 제정된) **좋은 입법**이(그것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정치학과 **별개**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문제의 대목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해당 대목의 한국어 번역(2012)은 원전을 오독한 것 같다: “그러나 제작적 학문들의 경우, 그 목적이 앎이나 인식과 다르다. 예를 들어, 의학의 목적은 건강이고, 정치학의 목적은 좋은 법질서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어떤 다른 것이다”(49면; 강조는 나의 것). 아무래도 1216b19의 ‘heteron’(다른, 별개의)을 놓친 것 같다.

은 문제의 행동에 말하자면 용기가 내재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구두라는 목표는 제화기술의 산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앎을 위해 앎을 추구하는 이론학은 앎 이외의 다른 목표가 없다. 그러기에 이론학에서는 용도나 유익이니 하는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 용도와 유익의 물음은 실천학과 제작학에서만 문제된다. 그렇더라도 실천학과 제작학에서는 용도와 유익을 일삼아 부가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아마도 목표 내지는 결과물과 유익이 일치하기 때문이거나 결과물을 근거로 유익이 별 어려움 없이 적확하게 규정되기 때문일 것이다(Rapp 2002, II 80).

예외적인 경우는 변증법과 수사학이다. 같은 기술로 분류되에도 용도와 유익을 따로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학은 설득 작업에 투입하여 ‘설득을 일궈낼 수 있는 요소’를 다룬다고 정의되고 변증법은 어떤 문제든 주어진 임의의 문제를 놓고서 널리 인정받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연역을 세우는 방법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들 규정에는(수사학의 경우) 설득인자(의포착)와 관련된 역량이, 그리고(변증법의 경우) 널리 인정받는 의견에서 출발하는 추론과 관련된 역량이(에르곤)규정에 명시된 목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귀뜸해주는 바가 없다. 달리 표현하면 에르곤, 즉 ‘하는 일’이 무엇인가만 규정되기에 그 외의 다른 목적을 거기서 읽어낼 수 없다. 유독 수사학과 변증법에서만 이득과 용도가 따로 언급되는 소이다.

2) 내재적 목표 vs. 외재적 목표

‘하는 일’(에르곤)과 이득 간의 관계는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차이를 들어 설명할 수도 있다(Rapp 2002, II 82). 에르곤으로 명시된 목표가 학문의 본질을 규정하는 경우라면 내재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 규정에 명시된 학문의 이론적 탐구 대상이 곧 내재적 목표가 된다. 그리고 문제의 학문은 그 같은 내재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수단의 확보를 위해 애써 작업한다. 문제의 학문은 이런 식으로 내재적 목표와 관련하여 정의된다. 학문의 역량 내지 전문성 역시 그것의 내재적 목표가 그 학문의 보편적 앎에 기초하

여 개별적인 경우에 달성되는가 여부에 비추어 측정되고 평가된다.

이에 반하여 외재적 목표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하나의 기술(의 내재적 목표)이 수단으로 투입되는 대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쪽에서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외재적 목표 달성에 투입되는 것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점이다.³⁾ 외재적 목표 쪽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외재적 목표가 문제의 기술에 의해 강구된 수단을 통해서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양자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것이다.

수사학을 구사함으로써 얻는 이득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도 이 같은 구별을 토대로 조명할 수 있다. 그가 언급하는 여러 가지 이득은 외재적 목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가 수사학의 에르곤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수사학의 학적 역량, 즉 설득을 일궈낼 수 있는 전문성은 그 같은 외재적 목표 달성에 투입될 수 있다. 다만 수사학의 이득으로 열거된 외재적 목표가 학인 한에서의 수사학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뿐이다. 문제의 외재적 목표가 수사학적으로만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재적 목표가 수사학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사태는 수사학의 오용 가능성의 언급(1355b1-7)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수사학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동일한 차원에서 오용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이다. 수사학이 외재적 목표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⁴⁾ 그밖에도 수사학의 내재적 목표를 규정하는 ‘설득인자’의 개념 역시 수사학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 어떤 필연적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2. 수사학의 학적 정초

아리스토텔레스로 하여금 수사학의 물음을 붙들고 씨름하게 했던 학적 사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전래의 수사 관행이고 다른 하

3) 그런 까닭에 문제의 목표가 외재적인 것이다.

4) 수사학이 외재적 목표와 실로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수사학의 오용 역시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나는 플라톤의 수사학 비판이다. 전자의 특징은 학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험지 수준의 앎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고 후자의 핵심은 언필칭 수사학에는 탐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걸 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학적 체계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로지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문성도 없으면서 어떻게 감히 학문 행세를 하느냐고 핀잔을 놓는 형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서는 양쪽에서 협공을 당한다고 느꼈을 법하다. 수사학으로 하여금 제 자리를 찾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명실 공히 학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적 문제의식이다.

1) 수사학 비판 (1): 몰기술적이고 반사안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이제까지 진행된 수사 관행은 몰기술적이고 사안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 크게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연설 중간에 투입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자극이다. 먼저 연설의 부분이다. 그것은 도막 혹은 마디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용어로는 토포스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용어이다. 그가 토포스를 다루는 『토피카』에서조차 그에 대한 아무런 개념 정의 없이 상용어처럼 무심히 사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독자나 수강생에게 익히 잘 알려진 용어였던 듯싶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토포스는 비유컨대 세트피스 같은 것이었다. 축구 경기에서 프리킥, 코너킥, 스로인 이후 펼쳐지는 조직적인 플레이를 일컬어 세트피스라고 하는데 특정 상황에 맞춰 사전에 짜놓은 각본대로 공격하는 전술이다. 공격연설 상황에서 토포스가 하는 일이 딱 그 짝이었다. 문제의 인물을 칭찬하는 데 효과적인 표현, 비난하는 데 효과가 검증된 표현, 청중 가운데 분노를 유발하는 데 유효적절한 표현이 마치 공식처럼 정해져 있었고 그런 ‘마디’ 표현, 즉 토포스를 개발하는 것이 수사가가 할 일인 것처럼 간주되었다. 고르기아스, 이소크라테스, 트라쉬마코스가 그런 것으로 유명

했던 대표적 인물이다.⁵⁾ 그들이 말하는 토포스란 말하자면 연설의 세트피스로서 상투적인 ‘마디’ 표현을 지칭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펼쳐졌던 학적 상황은 이 같은 물기술적 수사 관행이었다.

기술에 기초하지 않은 채 행해졌던 또 하나의 수사 관행은 감정자극이다. 『수사학』 I권 1장 서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의 수사학 교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데 청자의 감정을 자극하여 관심을 딴 데로 돌려놓는 트릭이 주된 포인트이다. 사안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데다 감정자극이라고 하는 것조차 주먹구구식이다. 반대편을 상대로 증상모략을 일삼는가 하면 재판관으로 하여금 특정의 감정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 같은 관행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을 측량할 잣대를 사전에 구부러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라고 꼬집는다(1354a15-26).

2) 수사학 비판 (2): 대상의 불특정성

플라톤의 대화편 『고르기아스』에는 정곡을 찌르는 수사학 비판이 담겨 있다. 플라톤의 비판의 요지는 수사학에 탐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수사학은 탐구대상이 없기에 체계적인 앎일 수 없다.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험에 터 잡힌, 아침과 쾌락을 낳는, 판에 박은 관성적 일처리 방식일 뿐이다(462c). 기술의 흥내만 내는 사이버기술이다. 겉으로 보면 기술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이 아니다. 무늬만의 기술이다. 신체 쪽에 요리기술이 있다면 영혼 쪽에는 수사기술이 있다. 신체 쪽에서 요리기술이 의학의 흥내를 낸다면 영혼 쪽에서 수사학은 사법의 흥내를 낸다.

5) 고르기아스와 관련해서는 *Soph. el.* 34, 184a1-8; 이소크라테스와 관련해서는 *or.* XII 111과 *or.* V 109, *or.* X 38; 트라쉬마코스와 관련해서는 Rapp 2002, II 818 참조. 『소피스트술적 논박을 논함』이라는 작은 논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에게 완성된 연설의 부분을 달달 암기시킨 고르기아스 유의, 체계가 잡히지 않은 작업방식을 질타하는데 조롱하는 눈치가 역력하다(184a1-8). 그의 눈에 비친 이전의 이른바 수사학자들은 아마위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겉으론 기술, 즉 수사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술의 결과물을 팔아 수익을 챙길 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 편한 구두 제작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떠벌이고선 수강생을 상대로 각종 신발류를 팔아 매상을 올리는 식이다. 등산갈 땐 이 신발이, 조깅할 땐 이것이, 산책할 땐 이것이 좋다는 식으로 말이다.

의학과 사법은 각각 신체와 영혼 쪽의 진짜기술이다. 전자는 신체에서 무너진 건강의 회복을 도모하고 후자는 영혼에서 무너진 정의의 복원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학은 요리기술의 (영혼 쪽) ‘맞상대’이다(464b). 양자 모두 사이비기술이라는 점에서 한통속이기 때문이다.

3) 변증법과의 구조적 공통성: 통념 기반형 증명

아리스토텔레스 앞에 던져진 수사학의 문제는 그에게 해결을 재촉하는 학적 과제이다. 그의 과제는 수사학을 기술로 정초하는 일, 물기술적 수사관행을 기술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해결책은 늘 문제에 배태되어 있다. 흠절을 특장으로 살리는 것이다. 수사학의 흠절은 무엇인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지적에 따르면 탐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수사학은 기술이 아니라는 게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비판의 핵심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대상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엇이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것이 수사학의 강점이다. 수사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는 변증법도 다르지 않다. 더구나 변증법은 플라톤이 그토록 감싸고도는 학의 전범이 아니던가. 『수사학』을 펼쳐들면 서두에 ‘변증법의 맞상대’라는 수사학 규정이 나온다(1354a1). 변증법이라는 플라톤의 무기를 들어 플라톤의 수사학 비판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그로써 플라톤의 수사학 비판의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변증법은 하나의 정립을 놓고 그것을 비판하는 입장과 옹호하는 입장이 서로 공방을 벌일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이다. 수사학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의 행동을 고소 고발하는 측과 그것을 변호하는 측 사이에서 변증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1354a3-6).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 서두에서 변증법이 유용한 경우로 여러 예를 드는데 그 중 하나가 사람들과 공방을 벌이며 ‘대결’할 때이다(101a30-34).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변증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기초하여’ 논변을 전개하는 기술이다. 같은 ‘대결’이 『수사학』 첫머리에서도 언

급된다(1355a29). 그에 따르면 수사학의 논변 역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견해를 기초로 구축된다(1355a27). 수사학이 변증법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수사학은 『토피카』 서두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공방을 벌이며 ‘대결’할 때 사용되는 변증법의 한 형식인 것이다.⁶⁾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같은 접근법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학을 설득인자(pithanon)와 설득(수단)(pistis)에 관계한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가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수사학은 담론의 모든 영역에서 설득인자를 통찰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설득력 일반이 아니라 공적연설—심의연설, 사정(司正)연설, 시전(示展)연설—의 장에서 문제가 되는 설득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사안을 놓고 유불리를 논하거나(심의연설)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유무죄를 다룰 때(사정연설), 혹은 특정인의 행적을 평가할 때 행하는 연설(시전연설)에서 청중에게 먹혀들 수 있는 설득인자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설득은 증명의 일종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해 가장 높은 정도의 확신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355a5-6). 증명은 다시금 연역의 일종이거나 모든 유형의 연역을 탐구하는 것은 변증법 전문가의 소관사이다(1355a8-10). 수사학이 변증법 전문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4) 수사학적 증명의 특수성: 대상 요인과 청자 요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설득(과정)은 근본적으로 증명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변증법의 맞상대로 이해함으로써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는데 거기에는 그가 논변을 전개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인정받

6) 『수사학』 서두에 나오는 ‘변증법의 맞상대’라는 수사학 규정에는 최소한 두 가지 함의가 내재해 있다. ‘요리기술의 맞상대’라는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 나오는 수사학 규정을 예들러 암시하는 것이 하나이고 사람들과 ‘대결’하는 데서 변증법과 상통하는 사정을 지적하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이로써 변증법을 통해 기술로서의 수사학에 이르는 안전한 길이 확보된다.

는 견해, 즉 청중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견해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함축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청중에게 명제 B를 확신 시키려는, 변증법적으로 교육 받은 연설가는 청자에 의해 이미 승인된 명제 A를 집어 든다. 그리고 그 A로부터 목표로서 있는 B를 연역적으로 도출한다. 모종의 부차적인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명제 A를 확신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두 명제가 추론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아는 한에서, 명제 B 역시 확신하게 된다. 이것이 수사학적 논변이나 변증법적 논변의 일반적 논증 형식이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적 증명을 변증법적 증명과 구별하기 위해 엔튀메마라는 별칭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공적연설에 최적화된 수사증명이다. 우선 수사증명에서 중요한 것은 위의 명제 A로부터 목표로서 있는 명제 B가 연역적으로 도출되지만 최소한 도출되는 것 같이 보이기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추론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겉보기만의 추론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증명뿐 아니라 증명 비슷한 (설득)수단도 수사학적 설득에서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른바 표지추론(sêmeion)이 그러하다(1357b1-25 참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모든 증명은 각기 하나의 연역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엔튀메마 역시 연역의 일종 혹은 일종의 연역이다. 따라서 양질의 엔튀메마를 정식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종류의 연역에 대해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변증법적)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엔튀메마가 수사학적 연역이므로 수사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추가적인 (수사학적) 역량이 필요하다.

변증법 전문가가 수사가이기도 하려면 유념해야 할 것이 둘 있다(1355a11-14). 하나는 공적연설의 주제가 변증법이나 이론철학의 주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후자가 관계하는 대상이 필연적으로 존립하는 것이라면 수사학이 관계하는 대상은 실천적 속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그대로 옮기면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1357a22-24).

다른 하나는 청자 요인이다. 심의연설의 청자는 민회 의원들이고 사정연

설의 청자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대중을 이루기에 길게 이어지는 일련의 추론을 따라잡는 데 어려움이 많다 (1357a3-4). 길들여지지 않아서다. 지적 수준 역시 균일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엔튀메마는 학적 증명과 같은 정도로 정밀할 필요가 없다. 통상적인 변증법적 논변보다 상대적으로 짧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변증법적 논변의 생략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엔튀메마의 전제의 내용과 수효가 공적청중의 지적 수준에 최적화되었다는 취지일 뿐이다.

II.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과 설득인자의 통찰

『수사학』 I권 1장의 마지막 부분(1355b7-21)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때까지 논의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점으로 요약한다. 하나는 수사학과 변증법 모두 공히 대상 영역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학이 여러 모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요약한 다음 곧바로 학으로서의 수사학의 과제를 언명한다. 일단 수사학의 ‘에르곤’은 설득하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다음 수사학의 ‘하는 일’의 요체는 주어진 사안에 잠재해 있는 설득인자를 포착하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 이 같은 단정적 언사는 수사학은 설득작업의 성공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 같아 일견 놀랍다. 그러나 그가 이어서 내놓는 부연설명을 들으면 문제의 언명이 학으로서의 수사학의 ‘하는 일’을 좀 더 뚜렷이 부각하는 작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1.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과 그 평가

일례로 학으로서의 의학에 정통한가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학적 전문성을 묻는 것인 한에서 문제의 인물이 어떤 수를 써서든 건강을 회복시킨다고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의학적 전문성이 문제인 한 유능한가 여부는 문제의 인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의학적 조치

를 제대로 잘 취하는가를 보고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1355b12-14). 환자란 환자는 죄다 고칠 수 있어야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닌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깊어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자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허망한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수사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자를 설득한다고 유능한 수사자인 것이 아니다.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은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연설 현장에서 행해지는 설득의 성패와 그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 수사학적 전문성을 가졌는가, 라거나 ‘수사학적으로’ 유능한가는 구체적인 특정 사안에서 설득에 성공하느냐로 판가를 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수사학적 전문성을 가졌는가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의 상황에서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변증법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토피카』 I권 3장에 따르면,

이러한 방법(=변증법)을 우리가 온전한 의미로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수사학과 의학과 또 그 같은 유의(다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문제의 방법을 갖추고 있을 때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는 것을 가능한 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연설가라고 해서(물불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의사라고 해서(물불 가리지 않고 닦치는 대로)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연설가든 의사든)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 가운데서(역량이 부족한 탓에) 빼먹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가 문제의 학을 충분한 정도로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03b5-10)

이 같은 예시에 비추어 보건대 수사학의 ‘하는 일’이 설득하기가 아니라 는 언명은 수사학적 역량 내지 전문성의 평가 기준과 관련한 언급으로 여겨 지는데 이 같은 잠정적 소결은 그 앞의 내용 요약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먼저 (1) I권 1장에서는 수사학이 변증법과 같은 유의 학으로 분류됨으로써 학적

차원에서 다뤄진다. 수사학의 학적 성격 규정이 논제이기에 학적 전문성의 평가 역시 학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 한편 (2) 수사학에는 그것이 기술인 한에서 이론적인 계기와 현장적용성의 계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현장적합성을 보완할 요량으로 수사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추가적으로 언급한다. 수사학이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학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외재적 목표’일 따름이다. 학인 한에서 수사학의 ‘하는 일’은 설득력의 원리와 원인을 궁구하는 일이다.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은 어디까지나 ‘내재적 목표’와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수사학이 구체적인 상황의 설득하기와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설득 현장에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수사학적 전문성이다. 다만 학적 필연성을 지닌 작업이 아닐 따름이다.

다시 말하지만 수사학의 ‘하는 일’이 설득하기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서 설득하는 일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득하기와 관련하여 다소간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일 뿐이다. 학문의 전문성이 특정의 목표 달성에 종속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설명이 궁하다. 환자가 숨을 거두었다고 해보자. 그를 돌보던 의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게 되는가.7) 자신이 주장하는 입장을 놓고서 공방이 벌어지는 데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변증법 전문가는 어떻게 (의회나 법정의) 투표에서 패한 연설가는 어떤가. 이 같은 유의 충분히 가능한 반론을 예상하고 선수를 쳐서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이 『수사학』 I권 1장 마지막 ‘에르곤’ 문단의 취지일 수 있다(Rapp 2002, II 101).

7) 플라톤의 『국가』 I권에 따르면 “내(트라쉬마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버릇처럼, 의사가 실수했다느니 계산 전문가가 실수했다, 문법 전문가가 실수했다, 고들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들 각자가 우리가 저들 각자를 부르는 그런 사람인 한에서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하기에 엄밀히 말하면 … 전문가가 실수하는 일은 없다.” (340d)

2. 수사학의 전문성에 기초하지 않은 설득은 설득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사학의 하는 일은 설득하기가 아니라는 언명은 기술인 한에서의 수사학의 과제를 규정하는 대목에 나오는 언명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설득하는 일이 수사학의 (외재적) 목표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특정의 의견과 판단의 산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학을 예로 들어 말하면 경제학자가 경제학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 현상 일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이나 특정 주식의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같다.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 역시 특정의 의견과 판단의 산출에 종속적이지 않다.

『수사학』 I권 1장의 학으로서의 수사학의 과제 규정에 따르면 설득의 목표 달성 여부는 수사학의 전문성과 본질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다. 외재적 목표(의 달성 여부)와 전문성(의 몰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수사학 이론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Rapp 2002, II 102). 우선, 청자 가운데 특정의 의견과 판단을 산출하는 일은, 물론 많은 부분 연설가에게 달려 있지만, 연설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인자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이 내비쳐진다. 그러기에 그 같은 (외재적) 목표가 수사학 이론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사학 이론은 설득력의 원리와 원인의 논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떤 사안에서든 설득을 일궈낼 수 있는 인자를 파악(하는)’ 것이 수사학의 학적 과제라는 언명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학』 I권 1장 첫대목에 나오는 지적이다. 개중에는 설득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바, 거기에는 필경 ‘이유’가 있을 터,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수사학의 소관사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1354a6-11). 연설가가 유능한가 여부는, 따라서, 이 같은 원리를 꿰뚫고 있는가 여부로 판가름 날 문제인 것이지 특정 설득 작업의 성패로 가려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렇더라도 특정의 의견과 판단의 산출이라는 목표와도 수사학이 완전히 담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문제의 특정의 의견과 판단이 연설을 통해 산출된다는 점이고 문제의 연설에 관계하는 수사학은 설득력 일반의 원인과 원리를 논구하는 수사학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런 한에서 특정의 의견과 판단의 산출과도 수사학이 연결된다.

이에 반하여 이전의 수사학 종사자들은 설득력 일반의 원인과 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설득의 (외재적) 목표에만 매달렸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디자인하는 철학적 수사학의 경우 설득이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 설득은 무슨 수를 써서든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설득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원인과 원리의 앎을 동원하여 특정의 상황에서 설득 가능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을 투입하여 설득을 일궈내는 일이다. 특정의 구체적인 설득이라도 학적 전문성에 기초하여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설득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다 설득이 아니다. 수사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따라서 사안 관련 인자가 반영된 설득만 설득의 이름에 값하는 설득이다.

III. 수사학 규정의 논리적 귀결

1. 수사학의 가치중립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I권 1장 끝부분과 2장 서두에서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설득인자의 포착이 수사학의 에르곤이라는 점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설득인자를 파악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수사학 전문가가 되는 셈이다. 그 같은 전문성은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학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문제의 용도가 수사학의 본성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한 수사학은 가능한 용도와 관련하여 가치중립적이다. 수사학에는 그것이 도달해야 할 규범적 목표가 없는 것

이다. 수사학은 그것이 수사학인 한에서 그것을 통해 관찰되는 목표들에 비추어 (거의) 가치중립적(혹은 몰가치적)이다.⁸⁾ 특정의 가치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변증법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하는 관계의 한 쪽을 지지하는 논변을 펴는 데서 뿐 아니라 다른 한 쪽을 지지하는 논변을 펴는 데서도 변증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바, 이것이 변증법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변증법 전문가의 경우 주어진 특정의 정립과 관련하여 그것을 옹호하는 논변을 펴든 그것을 반대하는 논변을 펴든 그로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수사학은 변증법의 ‘맞상대’(1354a1)이고 ‘부분’(1356a30)이다.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 수사학에도 들어맞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하게 언급하거니와, 변증법과 수사학은 서로 대립하는 것의 양쪽 모두와 똑같은 정도로 관계를 맺는다(1355a29-30).⁹⁾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국적으로 수사학은 청중의 판단을 목표로 삼는다(1377b20-22). 청중의 판단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곧 청중이 내리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걸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그에 따르면 연설가(1)는 수사기술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적대 관계에 있을 때 그 같은 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상이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게 만들 수도 있다. 나아가 연설가(1)는 수사기술에 힘입어 청중을 ‘자신의 의도하는 쪽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1382a16-19).

이 같은 수사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해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반론은 수사학을 나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1355a31)는 언명에 기초한 반론이다. 과연 문제의 언명은 도덕과 가치를 편드는 언명인가. 문제의 언명을 제대로

8) ‘거의’ 중립적이라고 제한을 가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참된 것, 옳은 것이 본성상 그 반대의 것보다 설득력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다(1355a21-22).

9) 변증법과 수사학 모두 연역(추론)을 세우는 것으로서 연역에서 문제 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논증)형식이기 때문이다. 형식은 일종의 용기로서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을 담든 상관없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세 번째 이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또 반대되는 것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연역을 할 때 그렇듯이 말이다. (그렇더라도) (서로 반대되는) 둘 모두를 실행할 셈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 나쁜 것을 (하라고) 설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사태의 진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논변을 부정하게 사용할 때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1355a29-33. 강조는 나의 것)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학문들 가운데서 변증법과 수사학 외에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것을 놓고서 연역(추론)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둘이 유일하다(1355a33-35).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것은 참된 것,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의 반대되는 것, 즉 거짓된 것, 나쁜 것, 부정한 것을 옹호하는 사람에게나 유리한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상이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그 같은 학적 특성의 요체가 무엇인지 부연한다. 요는, 우리가 사태의 상반된 두 측면을 놓고서, 현실적으로, 옹호론을 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쪽을 상대로 각각에 묻혀있는 설득인자를 포착하는 능력은,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므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같은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 상대방이 오류추론을 내세우거나 기만 전술을 펼 때 말려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사학을 나쁜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는 수사학의 외재적 목표 중 하나일 뿐, 그것이 수사학의 에르곤, 즉 수사학의 내재적 목표를 한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문제의 언급으로 인하여 수사학의 오용의 가능성이 부정되거나 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의 언급을 통해 수사학이, (턱은 예외이지만 여타의) 좋은 것이 모두 다 그러하듯(1355b4-6),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강조될 따름이다. 수사학은 그것의 내재적 목표의 면에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디자인하는 수사학에 입각한 청자의 설득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설득이 아니다. 어떤 대상이든 문제의 대상에 깊숙이 파문혀 있는 설득인자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여 이뤄지는 설득이 그가 말하는 설득이다. 이같이 틀지어진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는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지침 같은 것이 담겨 있지 않다. 그의 『수사학』은 모종의 방법적 수순을 밟는 바, 문제의 방법은 변증법의 행보와 똑 닮았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맞상대’ 내지 ‘또 하나의’ 변증법인 바,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분석적’이다(Rapp 2002, 1171). 그의 수사학은 특정의 입장을 전제하지 않은 채 출발한다. 무색무취한 상태에서 설득력의 원리를 정립한다. 그런 다음 공적연설의 임의의 대상에 문혀있는 설득인자가 어떻게 포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특정의 설득 목표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상론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에는 그것이 달성해야 할 규범적 목표가 부과되어 있지 않다.

2. 수사학 사용의 필요성과 정당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수사학은 변증법과 다르지 않아 대립적인 사태의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각각을 옹호하는 논변을 펴게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수사학은 수사학인 한에서 가치중립적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선택하느냐 악용하느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인물이나에 달린 문제가 된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큰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반듯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면 유익이 될 테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에 의해 사용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해악을 끼칠 수도 있을 터이다. 여기서 일단 민중선동가나 전제군주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덕 있는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진 않는다. 도대

체 덕 있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 수사학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 남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그런 유의 사람이 있다면 말이지만 덕 있는 사람이란 자신이 살고 있는 폴리스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두자. 또 공적연설을 이기적이거나 수치스런 목표 달성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자. 나아가 청자를 속이거나 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대관절 무엇 때문에 수사기술을 사용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좋은 것, 정의로운 것, 참된 것을 말하면 될 것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았던 직진형)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위와 같은 반론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는 『수사학』 I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한다.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경우 설사 아주 정치한 앎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기초로 연설을 통해 설득하기란 쉽지가 않을 터이다. 학적 인식에 부합하는 논변을 편다는 것은 곧 가르친다는 것인데 저 경우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리 없이 널리 통용되는(의견)에 힘입어 설득하는 과정을 밟으며 논변을 펼 수밖에 없다. 다중을 상대하는 일과 관련하여 『토피카』에서 말하였듯이 말이다.(1355a24-29)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앎에 기초한 설득이 용이치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엄혹한 현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직시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를 ‘가르치는’ 것이 제격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문자의 뜻 그대로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왜 그런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집단을 형성하는 무리는 개인 상대의 대화에서 대화 상대자가 보이는 반응과 다른 규칙을 따른다(1414a8-9 참조). 게다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구조적으로 학적 증명과 닮은 구석이 많다. 이런 식이다. 즉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교사가 모종의 전제와 결론을 내놓는다. 그러면 학생은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된다는 사실과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깨친다. 그러는 가운데 학생은 지식을 습득

한다. 교사가 제시하는 전제를 학생이 아직은 그것이 어째서 참인지 또 그것이 어떤 사태를 설명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학생이 그것을 참이라고 상정하기에 가능한 일이다(Top. 159a28-30; Soph. el. 165b1-3 참조). 그리고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적연설의 공간은 어떤가. 우선 통일된 견해가 없다. 백가쟁명이 다. 모든 주장이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일리’ 있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공적연설에서는 청자가 어째서 연사 갑의 전제보다 연사 을의 전제를 신뢰해야 하는지, 아니 도대체 어째서 어느 한 전제를 신뢰해야 하는지 강제하는 이유가, 원칙적으로, 전무하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학의 장과 완전 판판이다. 왜 그런가. (1) 다뤄지는 대상의 성격 때문이다. 전형적인 의미의 배움과 얽은 필연의 세계에 속하는 사물이 그 대상이다. 그러기에 배움과 얽어서는 참과 거짓이 판명하게 드러난다. 그에 반하여 공적연설의 주제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앎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사학이 다루는 대상은 필연적이지 않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그러기에 어떻게 결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사물, 심지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물이다(1357a22-33).

일반적으로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서로 주고받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렵게 만드는 공적연설의 제약조건은 그밖에도 많다. 무엇보다도 시간 제약이 있다. 발언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2) 청자 요인도 만만치 않다. 종종 화자가 말하려는 것과 반대되는(상대편 화자에 의해 유발되었을) 의견이나 적대적 태도에 선점되어 있을 수 있다. 또 공적연설의 청자는 저들의 판단을 사실에 기초해서만 형성하지도 않는다. 평균적인 청자의 취약성은 크게 지적 불충분함과 도덕적 불충분함으로 대별된다. 도덕적으로 불충분한 탓에 청자는 감정적 호소에 쉬이 넘어간다. 아침에 녀을 잃고 관심을 판 데로 돌리기 쉽다. 이해관계에 얽혀들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일 수도 있다(1395a32-b3; 1403b35-1404a8; 1415b4-6 참조). 한편 제한적인 지적 능력 탓에 길게 이어지는 복잡한 논변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적연설의 제반조건이 이와 같다고 할진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낼 요량이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도리 없이 수사학적 설득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쩌서 하필이면 아리스토텔레스 식 수사기술이냐의 물음이 제기된다. 어쩌서 그 당시 통용되던 재래의 수사학 매뉴얼은 아니냐는 것이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이전 수사학 교사들에 대한 비판에서 분명하게 밝혔듯이 재래의 수사기술의 몰기술성 때문이다. 방법에 기초한 설득이 아니라 트릭에 의존하는 재주부리기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법 기반의 수사학은 사안을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경우든 주어진 대상에 감춰진 설득인자를 확인하는 걸 목표로 삼는다. 그 같은 논증 기반 수사학은 사안을 중시하고 방법에 따라 투명하게 작동한다. 그렇기에 최소한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선호할 만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IV. 맺음말: 학인 한에서 수사학의 전문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 I권 첫머리에서 비판하는 바에 따르면 종래의 수사학 교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안 외적인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문제의 사안 자체에 어떤 설득인자가 묻혀 있는 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안에 기초한 설득 방법의 개발이 문제이다. 요는 사안에 기초한 설득이 어쩌서 더 선호할 만한가다.

사안(pragma)에 기초한 설득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pragmatic) 면에서 유리하다. 당시 법이 잘 정비된 폴리스에서 그러하였듯이 사안에서 벗어나서 말하는 것이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면 이전 수사학 교사들의 가르침을 좇아 트레이닝을 받은 연설가는 할 말이 없어 입도 뻥긋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354a20-21). ‘적법한’ 설득수단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¹⁰⁾

10) 이 같은 법적 규정이 별난 것이거나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이다.”(1354a21-22) 설득이 사안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

사안에 기초한 설득의 실용성 외에 철학적인 면도 고려될 수 있다. 참된 것, 정의로운 것, 더 나은 것이 그 반대의 것보다 본성상 더 설득적이기 때문이다(1355a21-22; 1355a37-38).¹¹⁾ 참된 것, 정의로운 것 등은 사안에 묻혀있는 한편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상 참된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1355a15-17). 연설가는 그냥 ‘참된 것’(과 ‘참된 것과 유사한 것’)의 설득력에 편승하여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1355a14). 그것의 ‘자연적’ 설득력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글의 출발점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상 밖의 언급, 즉 수사학의 과제는 설득이 아니라는 언급 역시, 그가 그의 『수사학』에서 전개하는 바와 같은 식의, 이 같은 사안에 정초된 수사학의 배경 하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수사학의 사용이 특정의 판단의 유발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설득을 유발하려면 수사학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설득을 하려면 수사기술에 기초하여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은 수사학의 에르곤이 아니다, 라고 말한 맥락은 수사학의 에르곤을 명시하는 대목이다. 핵심은 학인 한에서의 수사학의 에르곤이 뭐냐는 것이다. (1) 학인 한에서의 수사학의 과제는 설득인자를 포착하는 일이다. 따라서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의 유무는 문제의 학적 목표의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할 문제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사항은 수사학의 학적 전문성에 ‘우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수사기술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설득 현장에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여부

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처럼 별도의 논변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자명한 원리라고 이해한다. 이 같은 점은, 민회 의원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취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 연설의 사안 관련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1354b29-31). 위와 같은 법 규정은 이같이 만민에게 인정받는 원리를 법문 화해놓은 것일 뿐이다. 요컨대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사적으로 진행된 공방 끝에 내려진 판단은 사안 관련 인자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르게 혹은 합리적으로 내려진 판단의 전제조건이다.

- 11) 참된 것, 정의로운 것이 그 반대의 것보다 설득력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거늘 그 반대의 것에 밀린다면 그것은 오롯이 연설가의 역량 부족 탓으로서 이같이 자연에 거스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수사학이 유용하게 쓰인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학은 로고스의 자위수단 혹은 자구책이다(1355a38이하 참조).

같은 것을 수사기술의 기술적 전문성의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문제의 예상 밖의 언급이 학인 한에서의 수사학의 과제를 규정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지만 부수적으로 설득의 물음과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포인트를 시사한다. (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설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설득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설득은 시쳇말로 ‘닥치고(혹은 묻지마) 설득(!)’이 아니다. 그의 경우 사안과 동떨어진, 수사기술에 기초하지 않은 설득은 설득이 아니다. 설득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설득은 그의 경우 ① 사안에 기초한 ② 기술적 설득만이다.

수사학의 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설득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설득인자 혹은 설득력의 원리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의학의 하는 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병을 치료하는 데에 있지 않듯이 수사학의 하는 일 역시 무슨 수를 써서든 설득하는 데에 있지 않다. 경제학자를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경제이론에 정통하기 때문이지 그가 예컨대 증권 투자의 귀재여서가 아니다. 실물 투자에서 그는 번번이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가 경제학 이론가가 아닌 것은 아니다. 체육이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체육이론에 정통한 학자라고 해서 그가 특정 구단의 야구선수보다 야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프로선수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잘 할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고 그의 체육이론가로서의 권위가 실추되는 건 아니다. 그들이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앓거나 우울증을 앓는 의학자를 예로 들 수도 있다. 피로누적이거나 가족력으로 인해 당뇨를 앓을 수도 있고 또 어딘가 취약한 구석이 있어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의 의학자로서의 역량이 의문시되는 일은 없다.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과제가 설득하기가 아니라고 한대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통박할 일이 아니다. 기술인 한에서의 수사학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사학자가 연설을 하는 족족 설득에 성공하지 말란 법은 없다. 수사학자이면서 동시에 명연설가일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전무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필연적(necessary)이지는 않다. 수사학

자인 한에서 문제의 인물에게 필수적인(necessary) 것은 수사학의 전문성이다.
이 글의 출발점에서 언급했던 문제의 언명의 취지이다.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2012, 송유례 옮김, 『에우데모스 윤리학』, 한길사.
- Bekker, I. 1831: *Aristotelis Opera*, 2 Bde. Reprint Berlin 1970.
- Burnet, J. 1900-1905: *Platonis Opera*. 5 vols., Oxford.
- Dodds, E. R. (ed.) 1959/1990: *Plato, Gorgias*. Oxford.
- Garver, E. 1994: *Aristotle's "Rhetoric": An Art of Character*. Chicago.
- Johnstone, C. L. 1980: "An Aristotelian Trilogy: Ethics, Rhetoric, and the Search for Moral Truth," *Philosophy and Rhetoric* 13, 1-24.
- Kassel, R. 1976: *Aristotelis Ars Rhetorica*. Berlin.
- Kennedy, George A. 2007: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notes, and appendices, New York.
- Mathieu, G./Brémond, É. (eds.) 1929/1962: *Isocrate, Discours*, texte et traduction, 4 vols. Paris.
- Rapp, C. 2002: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ung, Einleitung und Kommentar. 2 Bde. Berlin.
- Rapp, C. 2009: "The Nature and Goals of Rhetoric," in G. Anagnostopoulos (ed.), *A Companion to Aristotle*. Chichester. 579-596.
- Reeve, C. D. C. 2018: *Aristotle. Rhetoric*, Translation with an Introduction and Notes, Indianapolis.
- Rorty, A. O. 1992: "The Directions of Aristotle's *Rhetoric*," *Review of Metaphysics* 46, 63-95.
- Wörner, M. 1990: *Das Ethische in der "Rhetorik" des Aristoteles*. Freiburg/ München.

The Job of Rhetoric is Not to Persuade?

- Aristotle on the Competence of Rhetoric as Such -

Hahn, Seokwhan

(Professor Emeritus, Soongsil University)

It is the task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the surprising statement of Aristotle that the job of rhetoric is not to persuade. The key to the question is where he makes the statement. At the end of Chapter I 1 of the *Rhetoric*, he gives a résumé that mainly relates to what has been presented so far. First of all, the affinity of rhetoric and dialectic as well as the usefulness of rhetoric is mentioned again, whereupon the statement immediately follows that the job of rhetoric as such is obviously not to persuade, but that its task is to see in every case what the persuasive is. The affinity of rhetoric and dialectic relates to the justification of Aristotle's rhetoric project and the statement of the goal of rhetoric as such to the definition of its nature. Both seem to present two different things, but show one single state of affairs in that they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The definition of the nature of rhetoric has a number of far-reaching consequences, under which the neutrality and the necessity of the use of rhetoric fall. The discussion of the questions that are aske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nature of rhetoric clearly shows how the competence of rhetoric is measured and what persuasion in the proper sense is for Aristotle.

Keyword ● counterpart to dialectic, external and internal ends, neutrality of rhetoric, the persuasive, competence of rhetoric as such, the rhetorical proof (the enthymeme)

▮ 논문투고일 : 2021. 11. 16. ▮ 심사완료일 : 2021. 12. 13. ▮ 게재확정일 : 2021. 12. 14.

